

게임 · 탄핵 · 민주주의 예술작품 전시

전일빌딩245에서 오는 6월 11일까지

“나에게 민주주의는 ○○○이다” 전시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공간인 ‘전일빌딩 245’ 건물이 민주주의 열망이 담긴 예술전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광주시는 전일빌딩 245에서 오는 6월 11일까지 ‘A4액션 2025 나에게 민주주의는 ○○○이다’ 전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A4액션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갤러리생각상자가 후원하는 예술행동 프로젝트인 이번 전시는 게임과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전환기를 경험한 시민과 예술가들이 느낀 분노, 우려, 희망을 예술적 언어로 표현한다.

또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당시의 아픔을 직접 겪은 오월어머니집 회원들이 전시에 참여한다.

고근호, 선안희, 전혜옥 등 지역 예술가 15인의 회화·사진·드로잉 작품과 오월어머니 8인의 작품 38점이 전시된다.

김윤환 작가의 정치풍자화 전시인 ‘내가 뽑은 독재자’ 시리즈 30점이 서울에 이어 광주에서 두 번째로 공개된다.

작가들의 작품은 ‘A4 액션 2025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감상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표현한 예술적 감성의 작품도 펼쳐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전국 예술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온·오프라인 연계 전시”라며 “예술행동을 통한 사회참여의 장을 넓히고 전일빌딩 245를 시민참여형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민주주의와 예술의 가치를 함께 조망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구 최강 비틀즈’ 딱정벌레 세계로 초대

호남권생물자원관, 어린이 맞춤형 전시·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관장 박진영은 오는 22일부터 딱정벌레를 주제로 한 전시 ‘지구 최강 비틀즈’를 관내 기획전시실에서 개막한다.

이번 전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종을 가진 곤충인 딱정벌레의 생물학적 특징과 생물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소개한다.

특히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만

화적 표현을 활용하여 쉽고 흥미롭게 내용을 전달한다.

전시는 △곤충과 딱정벌레에 대한 소개, △딱정벌레의 다양성과 분류, △생존전략과 형태적 특징, △인간과의 관계 등을 다루는 전시 공간, △딱정벌레를 직접 그려보는 체험 공간, △책들을 보며 읽 수 있는 휴식 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딱정벌레들의 특징을 비교해 보는 ‘딱정벌레의 대결, 비틀배틀’ 코너에서는 가장 크다고 알려진 ‘헤라클레스장수풍뎅이’와 우리나라 고유종인 ‘제주풍뎅이’, 멸종위기종인 ‘소풍구리’, ‘애기빨소풍구리’ 등 가지각색의 매력을 가진 딱정벌레를 만나볼 수 있다.

‘지구 최강 비틀즈’는 국립생물자원관과의 전시 교류로 열리며, 전시와 연계한 장수풍뎅이 표본 관찰, 무당벌레 바람개비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박진영 관장은 “이번 전시가 딱정

벌레를 비롯한 다양한 섬 생물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어린이날을 맞아 곤충에 관심이 많은 자녀와 함께 방문해 보길 추천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2021년 ‘날아오르다’ 전시를 시작으로 매해 섬과 생물자원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를 이어오고 있으며, 상설전시실과 더불어 작년 개원한 섬자생식물 전문 온실 ‘한국섬온실’에서도 다양한 우리나라 섬 생물을 소개하고 있다.

/목포=김근호 기자

한국민화뮤지엄 제11회 대한민국민화대전

학생부는 5월 중순·일반부는 6월 중순부터 접수 가능

국내 최대 규모의 민화 전문 국립 박물관인 한국민화뮤지엄(관장 오슬기)이 제 11회 대한민국민화대전을 개최한다.

해당 공모전은 학생부(초·중·고등부)와 일반부로 나눠 진행하며, 학생부는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일반부는 6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대한민국민화대전은 우리 고유의 전통 예술인 민화의 계승과 발전, 그리고 세계화를 목표로 강진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라남도 후원, 그리고 한국민화뮤지엄 주관으로 열리는 전국 규모의 연례 공모전이다.

지난 2024년 1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민화대전은 본관인 조선민화박물관의 ‘전국민화공모전’과 더불어 민화계의 양대 등용문으로 알려진 공신력 있는 공모전이기도 하다.

특히 민화 작가들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로 여겨지는 만큼 전국 각지의 민화 꿈나무들과 역량 있는 작가들

의 열정이 담긴 수준 높은 작품들이 대거 출품된다.

이번 공모전의 상금 총액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3800만원이다.

일반부 대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상금 역시 14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됨에 따라 대회 참여를 희망하는 작가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학생부는 초등 저학년부, 초등 고학년부, 중등부의 총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하며, 5월 13일부터 23일까지 접수할 수 있다. 출품작은 4절지 규격의 종이 위에 그린 그림으로 제한되며, 민화를 소재로 활용한다면 재료나 주제는 자유롭게 정하면 된다.

중등부 대상 수상자의 경우 전라남도지사 상장과 함께 15만원 상당의 상품을, 초등 부문 대상 수상자 2명은 전라남도지사 상장과 함께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수여한다.

/강진=김경선 기자

양림미술관, 김지희 개인전 ‘마음의 정원’

오는 27일까지…정원 풍경 담은 19점 전시

시각예술가 김지희 개인전 ‘마음의 정원’이 오는 27일까지 광주 양림미술관에서 열린다.

‘마음의 정원’은 그림이자 연재가 머무르고 싶은 공간에 대한 작가의 소망을 나타낸다.

김 작가는 꽃과 정원 풍경을 담은 19점을 전시한다. 특히 한우와 유화를 이용해 만든 꽃은 버려진 존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전시에서는 한우를 이용한 입체 작품들도 만나볼 수 있다.

조선대학교 회화기를 졸업한 김 작가는 담양갤러리 14, 호랑가시나무창작소에서 개인전을 열고,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하면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 작가는 16일 “새로운 길을 찾고자라고 희망을 품는 우리의 여정을 작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조선주 기자



기고

내장형 배터리, 화재 예방법 숙지



이 범 석

/신안소방서 현장대응단

스마트폰과 노트북, 이어폰, 심지어 전동 킥보드까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휴대용 전자기기들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그 중심엔 ‘내장형 배터리’라는 잠

재적 위험 요소가 자리하고 있다.

겉모습은 매끈하고 안전해 보이는 기기들이지만 배터리 내부에선 언제든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고 지낸다.

최근 몇 년간 내장형 배터리 화재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며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단순한 기기 고장을 넘어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가 과연 이런 위험을 얼마나 제대로 인지·대비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된다.

내장형 배터리 화재는 주로 배터리의 물리적 손상이나 과충전, 과방전, 외부 환경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 떨어뜨리거나 강한 충격을

받은 기기, 정품이 아닌 충전기를 사용하거나 장시간 충전하는 경우,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된 기기는 배터리 내부의 불안정성을 높여 화재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중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기기를 소중히 다루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 압력을 가하거나 떨어뜨리는 등의 행동은 배터리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또 전동 킥보드와 같은 이동수단의 경우 험한 길 주행이나 무리한 사용이 배터리에 과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과충전을 피해야 한다.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정품 충전기는 해당 기기의 배터리 특성에 맞춰 설계됐기 때문이다. 비정품 충전기 사용은 배터리 손상과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 완전히 충전된 기기를 장시간 충전기에 꽂아두는 과충전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키는 건 물론 화재 위험을 높이므로 피해야 한다.

셋째 고온 다습한 환경에 기기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차 안이나 습도가 높은 욕실 등은 배터리의 성능 저하와 화재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기기를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서늘한 곳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기기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전문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과도한 기열 발생, 평소보다 배터리 소모가 심해지는 등의 이상 징후는 화재 발생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내장형 배터리 화재로부터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생활 속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노력을 실천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NEW AGE NEWSPAPER - THE HONAMMAEIL

호남매일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기사제보 · 독자 의견 • TEL : (062) 363- 8800
- FAX : (062) 362-0078

- ▶광고문의 • TEL (062) 363-0005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news.co.kr>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il@naver.com

지국안 내

총 장 ……223-4123
무 등 ……224-4188
동 부 ……234-4235
학 등 ……225-0651
광 천 ……374-2120
화 정 ……374-3713
금 호 ……376-7153
쌍 춘 ……371-9384

상 무 ……381-5310
서 부 ……651-0004
송 암 ……362-4102
능 성 ……362-4102
진 월 ……671-7276
봉 선 ……675-5530
중 앙 ……521-5540
중 흥 ……433-1503
양 산 ……574-3745
운 암 ……521-4270

오 치 ……261-9461
문 흥 ……261-9462
일 곡 ……573-3200
동 문 ……525-8994
두 암 ……266-1920
첨 단 ……971-1920
신 창 ……955-0451
월 곡 ……941-9174
송 정 ……010-5524-3638

지사안 내

목 포 ……010-8718-1234
순 천 ……010-9656-1383
광 양 ……010-9656-1383
나 주 ……010-9193-6322
담 양 ……010-9067-4076
국 성 ……010-5602-1785
구 례 ……010-8597-0053
보 성 ……010-3626-4776

화 순 ……010-2430-5055
영 광 ……010-9860-5489
완 도 ……010-5066-4708
장 흥 ……010-5665-8354
신 안 ……010-2028-4800
강 진 ……010-3608-0472
장 성 ……010-3610-7824

함 평 ……010-3616-4282
영 암 ……010-4604-3742
무 안 ……010-2050-0136
진 도 ……010-8525-4567
해 남 ……010-3471-6542
광 산 ……010-7613-4320
고 흥 ……010-4644-8383